

2015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 4. ①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 연필의 장점은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
- ② 동생은 5년 동안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 ③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 ④ 돌이켜 회고해 보면 우리는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 ⑤ 가정은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적 덕목을 계발하는 터전이다.
- 2.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ー<보 기>—

홑이불 → [혼니불], 꽃잎 → [꼰닙], 읊다 → [읍따], 헛웃음 → [허두슴]

- ① 종성의 자음이 탈락하였다.
- ② 음절 끝의 장애음이 평음으로 바뀌었다.
- ③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④ 뒤에 오는 말의 초성으로 'ㄴ'이 첨가되었다.
- ⑤ 받침으로 쓰인 폐쇄음 뒤에서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① 실패에 실이 잘 감기지 않았다.
- ① 형은 지금 군대에서 7연대 소속이다.
- ⓒ '이원론'이란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 ② 우리말에서는 받침의 지읒을 표기대로 발음할 수 없다.
- ① 수업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악을 무엇으로 하지?
- ① ①: '감기지'는 [감끼지]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② ②: '7연대'는 [칠련대]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③ ②: '이원론'은 [이월론]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④ ②: '지읒을'은 [지으즐]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⑤ ②: '끝을'은 [끄츨]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보 기>----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 조사는 결합하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문 장에서 격 조사의 쓰임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gcirc

- ① '우리 형은 대학생이다.'의 '이다'.
- ②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 주신다.'의 '께서'.
- ③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에서 '이시여'.
- ④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에서 '로'.
- ⑤ '누나는 개나리하고 진달래를 좋아한다.'의 '하고'.

5.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 ① '밀어내 버렸다.'는 '밀어내버렸다.'로 쓸 수 없겠군.
- ② '잘난 체를 한다.'는 '잘난 체를한다.'로 쓸 수 없겠군.
- ③ '이것은 믿을 만하다.'는 '이것은 믿을만하다.'로도 쓸 수 있
- ④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로 쓸 수 없겠군.
- ⑤ '아이들이 떠들어만 댄다.'는 '아이들이 떠들어만댄다.'로 쓸 수 없겠군.

6. ③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3점]

우리말에는 ③<u>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단어</u>가 있다. 이들이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u>①</u><u>피동사로 쓰인 경우</u>는다음과 같이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 할머니는 동생을 어머니에게 업혔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 피곤한 동생이 어머니에게 업혔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사탕은 입 안에서 녹여 먹어야 한다.
- ② 그는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 ③ 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뜯겨 있었다.
- ④ 경품에 현혹되어 낚인 소비자가 등장하였다.
- ⑤ 두 달간의 폭염은 동네 샘물을 말려 버렸다.

7. <보기1>의 ⊙~回 중, <보기2>의 ⊙가 쓰인 것은?

-----<보 기1>---

동 생: 누나! 형 어디 갔어?

누 나: 도서관 ①갔어. 내일 시험이 있다고 ①그러던데. 왜?

동 생: 음. ②그렇구나. 모르는 것 좀 물어 보려고 ②했는데.

누 나: 뭔데? 나한테 물어보면 미되지.

동 생: 그럼, 이 문제 좀 풀어줘.

----<보 기2>---

어말어미가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이 예쁘게 피었네.'에서 '-네'는 말하는 이가 꽃이 예쁘게 핀 사건을 ②사롭게 알거나 깨닫게 된 것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이다.

1 7

② (L)

3 🗉

4 己

(5) (D)

8.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⑤ 가을은 <u>독서의</u> 계절이다.
- ⑤ 동생은 <u>새</u> 자전거를 샀다.
- ⓒ 누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
- ② 경찰인 형은 휴가에나 볼 수 있다.
- ① <u>자기</u> 전에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
- ① ①에서 명사가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② 心에서 관형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③ ⓒ에서 명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④ 리에서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⑤ 印에서 동사의 명사형이 관형어로 쓰였군.

9. (가)를 참고할 때, (나)의 ⑦~ⓒ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가) 하글 맞춤법 조항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 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나) 학생의 탐구 내용

보기	올바른 표기의 단어
'굵직하다', '굴찍하다', '국찍하다'	9
'짧다랗다', '짤따랗다', '짭따랗다'	0
'넓직하다', '널찍하다', '넙찍하다'	©

			<u>_</u>
1	굵직하다	짤따랗다	널찍하다
2	국찍하다	짭따랗다	넙찍하다
3	굵직하다	짧다랗다	넓직하다
4	굴찍하다	짧다랗다	넓직하다
(5)	굴찍하다	짤따랗다	널찍하다

10. ①, ⓒ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____<보 기>____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은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의 활용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따르다' 유형: -------
- '푸르다' 유형: 이르다[至], 누르다[黃]
- · '부르다' 유형: -------

1	치르다	나르다
2	구르다	치르다
3	흐르다	구르다
4	기르다	흐르다
(5)	나르다	기르다

11. □~回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① 이것은 성린이가 읽던 책이다.
- ⓒ 항상 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 ② 비가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 □ 성연이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본다.
- ① ①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②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 ③ ②은 전성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절이 주어로 쓰인 겹문장이다.
- ④ 리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한 겹문장이다.
- ⑤ ٰ ㅁ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한 겹문장이다.

【12~13】다음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와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제목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 개요

I. 서론 : 문제 제기

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III. 저출산 문제의 원인

가. 개인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IV.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가. 개인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V. 결론 : 요약 및 제언

[추가로 수집한 자료]

[A] 신문 기사 자료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00 신문 -

[B] 인터뷰 자료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아 문제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000 씨 -

[C] 보고서 자료

우리나라는 2020년 경에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높다. 이로 인해 경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 00 경제 연구소 -

12. 개요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에서 [C]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가 고령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음을 들어 저출산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 ② II-가에서 [C]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는 젊은 계층의 노년층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다룬다.
- ③ III-가에서 [B]를 활용하여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기혼 여성의 사례를 다룬다.
- ④ IV-가에서 [A]를 활용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 교육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언급한다.
- ⑤ IV-나에서 [B]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13. '저출산 문제'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다가올 폭풍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 야 합니다.
- ② 출산을 책임지는 나라, 가정을 책임지는 나라. 따뜻한 가정이 행복한 국가의 기본입니다.

- ③ 교육비 걱정이 사라진 나라, 양육비 걱정이 사라진 나라. 이것이 바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 ④ 육아의 고통을 개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것만이 아름다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⑤ 저출산 사회의 깊은 늪,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 사회의 무거 운 집,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14~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가뭄이 들자 나라에서 전국에 술 빚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자는 잡아들여 벌금을 내게 했다. 이에 명을 어긴 자를 관가에 몰래 일러바치고 포상금을 타려는 자들이 많아졌다.

(가)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 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 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 보고 술지게미가 있거든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 안을 수 색했다. 과연 석 되들이쯤 되는 항아리에 새로 늦가을에 담근 술이 들어 있었다.

다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다모는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고질이 됐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A] 되를 어디서 얻어 왔어. 노인의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 주시기 바랄 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 버렸다. 그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아전은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소"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음식도 못 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 는 겁니다."

다모는 그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쌀도 내가 찧고 술 담그는 일도 내가 했으니, 늙은 할미 혼 자 지키는 집에 알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술을 팔진 않으셨나요?"

"나는 늙은 남편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술을 담근 것뿐일세. 항아리도 겨우 몇 사발쯤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남에게 팔고 나면 무슨 남은 게 있어서 우리 집 양반을 드리겠나. 하늘에서 확한 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속이겠나?"

"정말 그러시다면 누군가 술맛을 본 사람이 달리 없을까요?"

"젊은 생원이 있네, 우리 시동생. 어제 아침에 성묘하러 가는데 우리 집 가난한 살림에 아침밥을 해 줄 수가 있나. 밥을 굶고 길 떠나야 될 형편이라 내가 술 한 사발을 떠다 드렸네. 그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젊은 생원과 이 댁 양반이 진짜 친형제가 맞으세요?" "아무렴."

"젊은 생원은 나이가 어찌 됩니까? 얼굴은 살이 쪘나요, 말랐 나요? 키는 얼마나 되고, 수염은 얼마나 났나요?"

할머니는 다모가 묻는 대로 자세히 대답해 주었다. 다모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 아전에게 말했다.

"양반 댁엔 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이닥친 걸 보고는 주인 할머니가 놀라 쓰러져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내가 올러대 다 할머니를 죽인 셈이다 싶어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다 나오 느라 늦었네요."

다모는 아전을 따라 한성부로 향했다. 젊은 생원 하나가 뒷짐을 지고 거리를 서성이며 아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보였다. 젊은 생원의 생김새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시동생의 생김새와 똑같았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네가 양반이냐? 양반이란 자가 형수가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 했단 말이냐?"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 주변을 빙 둘러 서서 구경을 했다. 아전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아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걸 숨겨 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나) 아전은 다모를 붙잡아 주부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 바쳤다. 주부가 심문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모두 자백했다. 주부 는 성이 난 척하며 말했다.

"술 담근 일을 숨겨 준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곤장 20대를 쳐라!" 오후 6시 무렵 관청 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따로 불러 엽전 열 꿰미를 주며 말했다.

"네가 숨겨 준 일을 내가 용서해서는 법이 서지 않기에 곤장을 치게 했다만, 너는 의인이로구나. 참 갸륵하다 여겨 상을 내리는 것이다."

다모는 돈을 가지고 밤에 남산의 그 양반 댁으로 가서 주인 할머니에게 건넸다.

 "제가 관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곤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 입니다만,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으셨더라면 이 상이 어디 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은 할머니께 돌려 드릴게요.

[B]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1천 전 돈으로 반은 땔나무를 사고 반은 쌀을 사시면 추위와 굶 주림 없이 겨울을 나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절 다 술을 담그지 마셔야 합니다."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 서 돈을 사양했다.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 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이 돈을 받는단 말인가?"

할머니가 굳이 사양하며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할 머니 앞에 돈을 밀어 두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 송지양, 「다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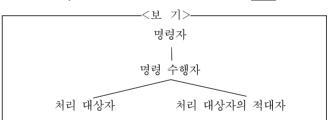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선인과 악인의 대결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 하나하나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국면을 전환하여 각 공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5. [A]와 [B]에 나타난 '할머니'와 '다모'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유사한 사례를, [B]는 대비되는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 ② [A]는 긍정적으로 [B]는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며 말하고 있다.
- ③ [A]는 실제 일어난 상황을, [B]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의 감정에, [B]는 상대방의 권위에 호소하며 말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B]는 상대방의 다짐을 요구하면 서 말하고 있다.

16. (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명령자'는 '처리 대상자'의 범법 사실을 모르고 '명령 수행자'에게 명령했다.
- ② '명령 수행자'는 '명령자'의 명령보다는 '처리 대상자'의 상황을 더 고려하고 있다.
- ③ '명령 수행자'는 '처리 대상자'를 통해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누구인지 를 인지했다.
- ④ '처리 대상자'는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한 적대 행위를 모르고 있다.
- ⑤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한 적대 행위에 대해 '명령 수행자'와 '명령자' 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다.

1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주부가 다모에게 곤장을 친 일은 ()(이)라고 할 수 있군.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 ② 반근착절(盤根錯節)
- ③ 삼인성호(三人成虎)
-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⑤ 읍참마속(泣斬馬謖)

【18~2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하는 인간인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신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소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일'이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 먹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사먹는다. 이 점에서 소비는 노동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 소비의기본 원칙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장 원리 아래에서 생산자와 만난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 의미의 ①합리적 소비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산보다는 소비가 화두가 된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는 단순히 필요한 재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유리한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최대 효과 자체에 정서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 개입하면서, 이제 소비는 개인이 세계와만나는 다분히 심리적인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곧 인간의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합리적 소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가 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비문화는 물질적 소비 차원이 아닌 심리적소비 형태를 띠게 된다.

가령 베블린 효과(veblen effect)는 남들보다 돋보이거나 뽐내고 싶어서 비싼 물건일수록 사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스노브 효과(snob effect), 대중적으로널리 알려진 상품을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고자 하는 밴드 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미적 특성 등과 같은 감성적 가치를 구매 결정의 우선 요소로 보는 헤도니스트 효과(hedonist effect) 등이 있다.

소비 자본주의의 화두는 이제 과소비가 아니라 ◎과시 소비로 넘어간 것이다. 과시 소비의 중심에는 신분의 논리가 있다. 신분의 논리는 유용성의 논리, 나아가 시장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 혈통으로 이어지던 폐쇄적 계층 사회는 소비 행위에 대해 계급에 근거한 제한을 부여했다. 먼 옛날 부족 사회에서 수장들만이 걸칠 수 있었던 장신구에서부터, 제아무리 권문세가의 정승이라도 아흔아홉 칸을 넘을 수 없던집이 좋은 예이다. 인도의 한 지방에선 하층 계급의 여인들은긴치마를 입을 수도, 머리에 꽃 장식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을 통해 자기의 취향을 주위 사람들과 분리시킴으로써 경외감을 강요하고, 그렇게 자기 취향을 과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들을 통제한 것이다.

가시적 신분 제도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분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물 질적 부를 표현함으로써 신분을 과시하려 한다. 문제는 혈통이 보장하는 신분에 비해 부에 의한 신분은 덜 견고하다는 것이 다. 자본주의 시대의 신분 과시욕이 호모 콘수무스를 만들어 냈다면,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가 일구어 낸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극대화를 향해 돌진했다.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건전한 소비이다. 그러나 필요량을 넘어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팔기 위해 초기 산업화는 제국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원료도 싸게 가져오고 싼 인건비로만들어서 다시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식민지만큼 매혹적인 것

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는 필요성이나 가격과 무관한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생산자나 판매자의 전략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에 부가되어 소비자의 욕망을 만들어 내는 요소에 집중될수밖에 없다. 이것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기호 가치이다.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되는 것은 제품에 부여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들은 최근 노골적으로 과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TV는 온통 소비를 누리는 안온한 부르주아지의 삶을 떠안기느라 여념이 없다.

18.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하여 화제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여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통시적인 관점에서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호모 콘수무스의 출현 이면에는 자본주의 자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 ②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
- ③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조절한다.
- ④ 폐쇄적 계층 사회에서 소비 행위는 권력과 계급에 의한 통제가 이루 어진다.
- ⑤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은 초기 산업화로 이어져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20. 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②과 ⓒ은 심리 요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② ③에 비해 나은 시장의 논리로 설명된다.
- ③ ①에 비해 ①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의 의미가 크다.
- ④ ○에 비해 ⊃은 생존 욕구를 중시한다.
- ⑤ ⓒ에 비해 ۞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 한다.

21. @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A 씨는 이민을 떠나는 친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인수하여 만족하고 있다.
- ② B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광고하는 운동화를 구입하고 친구에게 자랑하였다.
- ③ C 씨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휴대 폰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 ④ D 씨는 사용하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를 무리해서 구입하였다.
- ⑤ E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시계가 고장 났지만 아버지와 의 추억을 떠올리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22~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화를 아주 거칠게 정의해서 '민중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과 생활 습속 속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한 대중적인 실용화'라 한다면, 그 기원은 신석기 시대의 암벽화까지 ①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화는 임진·병자 양난이 끝난 17세기 이후에 생겨나 18~19세기에 전성기를 맞는다. 특히 19세기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민화는 이때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화 작가에는 도화서의 화원에서부터 화원이 아닌 일반 화공들, 승려나 무당 가운데 재주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시골장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낙화(落畵)나 혁필화(革筆畵)를 그리던 유랑 화가들도 포함된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그림이 민중적이고 투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그림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도 다양했다. 왕실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계층이 민화의 수요자였다. 그 중에서도 수요가 많았던 민화는 나쁜 귀신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기를 ①바라는 대중의 의식과 습속에 얽힌 그림, 집 안팎을 단장하기 위한 그림, 병풍·족자·벽화 같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그림들이었다.

민화는 매우 자유분방한 화법을 구사한다. 민화는 본(本)에 따라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부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로 같은 주제이면서 똑같은 그림은 없다. 왜냐하면 양반처럼 제약받아야 할 사상이나 규범이현저하게 약한 민중들은 얼마든지 자기 취향대로 생략하고 과장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화의 자유분방함은 공간 구성법에서도 발견된다. 많은 경 우 민화에는 공간을 묘사하는 데 좌우·상하·고저가 분명한 일 관된 작법이 없다. 사실 중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통 용되던 전형적인 화법은 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 원근에 따라 일관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삼원법(三遠法)에 따라 다각도에서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대상을 바 라보는 시각이 이보다 더 자유롭다. 그렇다고 민화에 나타난 화법에 전혀 원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민화에서는 종종 그 리려는 대상을 한층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 대상의 여 러 면을 화면에 동시에 그려 놓는다. 그런 까닭에 민화의 화법 은 서양의 입체파들이 사용하는 화법과 비교되기도 한다. 가령 김홍도의 맹호도를 흉내 내 그린 듯한 민화의 경우처럼 호랑 이의 앞면과 옆면을 동시에 그려 놓은 예나, 책거리 그림의 경 우처럼 겉과 속,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그려 놓은 것이 그 예에 속한다. 민화의 화가들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무시 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표현 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주어진 현실에 종속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더 믿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민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화법은 아마 역원근법일 것이다. 이 화법은 책거리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앞면을 작고 좁게 그리고 뒷면을 크고 넓게 ②그리는 화법인데 이는 그리려는 대상의 모든 면 특히 물체의 왼쪽 면과오른쪽 면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화법으로 판단된다. 이런 작법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민중들이 자신들의 천진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19세기에 농상(農商)의 경제 체제의 변화나 신분 질서의 와해 등으로 기존의 기층민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신분

적 근거가 확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중들의 자유분방함이 표현된 민화에는 화법적인 것 말고도 내용 면에서도 억압에서 ඔ벗어나려는 해방의 염원이 실려있다. 민화가 농도 짙은 해학을 깔면서도 그러한 웃음을 통해당시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랑이 그림에서 까치나 토끼는 서민을, 호랑이는 권력자나 양반을 상징한다. 즉 까치나 토끼가 호랑이에게 면박을 주는 그림을 통해 서민이 양반들에게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민중들의 신장된 힘 혹은 표현력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민화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기상천외한 발상법으로 그들의 생각에 따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이라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그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민화의 작가와 수요자는 공통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 ②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역원근법과 같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 ③ 대부분의 민화가 19세기에 그려진 것은 기층 계층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 ④ 민화의 자유분방함은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는 민화 작가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 ⑤ 민화의 공간 구성법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통용되던 전형적인 방식에 충실했다.

23. 윗글과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은 내 가실하다 <u>많는</u> 것은: [8년] <보 기>———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 피카소의 그림 '아비뇽의 처녀들'(1907년)은 왜곡된 신체를 표현하고 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두 여인의 코가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관람자에게 등을 보이고 앉은 여인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이처럼 피카소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원근법과 결별하고 복수의 시점에 의해 대상을 해체하여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보다 완전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신체의 왜곡을 통해 피카소는 당시 물질주의가 만연한 근대 사회와 그 사회에서 기이한 사물처럼 살아가는 근대 인간을 비판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제시하였다.

- ① 민화와 '아비뇽의 처녀들'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군.
- ② 민화와 '아비뇽의 처녀들'은 그리는 이의 의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군.
- ③ 민화에는 현실에 대한 풍자 의식이 드러나고 '아비뇽의 처녀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는군.
- ④ 민화는 해학적 동물을 통해 당대 규범을 표현했고, '아비뇽의 처녀들' 은 왜곡된 신체를 통해 사물화 된 인간을 표현했군.
- ⑤ 민화가 대상의 앞면과 옆면을 동시에 그려놓는 방법은 '아비뇽의 처녀들'이 복수의 시점으로 대상을 그리는 방법과 유사하군.

24. → □을 한자어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全급(遡及)할 ② ②: 기원(祈願)하는 ③ ②: 응시(凝視)하고 ④ ②: 모사(模寫)하는

⑤ 回: 탈출(脫出)하려는

【25~2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1)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나)

②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b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u>@지는 해</u>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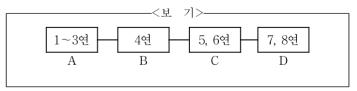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③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소재를 동원하여 삶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 ② 자연물이 지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일체 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과 현실을 대비하여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가졌던 화자의 허무한 정서는 B에서 바뀌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가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C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C에서 하는 '기도' 행위에 대해 화자는 A에서 그 행위를 하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다.
- ④ A. B. D에 '겨울 바다'라는 공간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지만, 그 의미는 모두 다르다.
- ⑤ D는 B와 C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7.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골목이 너무 좁았고'를 통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상황을 표 현하고 있다.
- ②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통해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창백함'과 '반쪽 난 달빛'을 통해 밤늦도록 고되게 일하다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해 가족에게 미안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그럴듯한 집'과 '못 하나, 그 위의 잠'의 대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고 자 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28.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는 자연물의 의인화를 통해, (나)는 점층적 구조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기원의 어조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청유형 어미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9. ⓐ~ⓒ 중, ⑤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것은?

1) a

② (b)

(3) (c)

(4) (d)

(5) (e)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와 역사·영토의 귀속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각종 국가 이데올로기와 발전 전략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는 사회적 호름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역사학계를 통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론적 틀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중화주의 혹은 중화 중심주의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화주의란 용어는 과거에도 중국 내에서 널리통용되었던 것으로서 오늘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맥락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①전통적 중화주의는 전국시대부터 진·한 시대에 걸쳐 정치적 통일 과정과 유교적 덕치주의 이론의 정비 과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정통론에 입각한 화이론(華夷論)과 책봉·조공 체제의 논리 그리고 중국 왕조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우월감 등이 작용하였다. 진·한 시대 이전까지 정통의 기준은 민족적 혈연보다는 중원에서의 생존권과 중원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해 중원 문화를 지녔느냐의 여부였다. 그러던 것이 진·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열 관계에 입각한 민족적, 문화적 구별이 점차 분명해져 '화'와 '이'는 각각 중국 문명이 발달한 민족과 발달하지 못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진·한대 이후에는 화하족(華夏族) 즉 한족의 통치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일 왕조의 모든 영토를 지칭하게 되었고 이렇게 '화'와 '이'를 구별하는 관념은 당(唐)대에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송·요·금대에 이르면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한족이 아니라 수렵이나 유목을 주업으로 하는 비(非)한족이 세운 국가들이 자신들을 정통으로 여기면서 '화'와 '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원대에는 원을 비롯하여 송·요·금·서하모두가 '중화'로 간주되었고, 청대에 접어들어 청조인은 자신들을 중화의 정통 계승자로 자임하면서 몽골·신강·서장·대만까지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특히 청대에 이르면 한족 지식인조차 청조를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여 중화의 정통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화이론이 붕괴되지 않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변방의 소수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책봉·조공 체제를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대와 청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족과 대립하던 민족들 가운데 일부가 중화로 편입되긴 하였지만 이들 민족을 제외한 변방의 소수 민족이나 국가는 여전히 '중화'라는 중심이 유지될 수 있는 바깥 즉 '비중화'를 형성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화이관은 아편 전쟁이후 청 정부가 서양 오랑캐로 간주되었던 '양이(洋夷)'에게 수차례 패전하고 책봉·조공 체제의 일원이었던 조공국들이 그체제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오늘날 ①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형태로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중화주의는 화와 이의 통일성, 일체성을 강조한 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핵심은 중국이 한때 한족과 다수 의 비(非)한족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면서 분열되기도 했지 만 기본적으로는 대일통(大一統)의 오랜 전통에 의해 여러 민 족이 단결·융합하면서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형성해 왔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화 민족은 별개로 존재하는 다수 민족 의 총합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한족과 이민족이 교호 작용 하면서 융합된 '복합 민족' 혹은 '역사 융합의 산물'로 규정된 다. 새로운 중화주의로서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는 오늘 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물론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인해 서구 열강에게 영토의 일부를 빼앗기기 이전까지의 청대 최대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역 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두 중국을 구성하는 중화 민족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 이 역사 속에서 행해 왔던 모든 역사적인 활동이나 그들이 세 운 왕조들 또한 모두 중국의 왕조이며, 각각의 왕조들이 관할 하고 있던 각각의 강역(疆域) 즉 영토들의 총합 역시 역사상 중국의 강역에 해당한다고 본다.

한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현대의 강역 형성 과정에 작용하였던 정치적·지역적 통합 의지를 과거에까지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적 통일이나 광범위한 통일의 과정을 국가 통일과 강역 완성에 대한민중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로 파악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시대 이후 진·한 왕조의 통일과 발전 역시 당시 인민들의 통일 욕구에 따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역사 인식 혹은 오늘날의 중화주의의 이면에는 현 시대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내부의 빈부 격차, 소수 민족의 소외감 표출과 분리 독립 요구 등과 같은 문제를 의식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중핵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이론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그 단적인 예

가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u>동북공정의</u> <u>논리</u>이다. 역사 연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등한 쌍방 관계 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와 이것 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동북공정의 논리에는 이러한 역사 연구 의 기본 전제조차 배제되어 있다.

30.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이론을 비교하여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이론의 배경을 분석하여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 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이론'을 바탕으로 중화와 비중화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 ② 중국의 정치적 통일과 통치 이념의 정비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 ③ 원대와 청대에 들어서 비중화를 형성했던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 ④ 조공에 대한 강제력 행사 여부가 '화이론'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였다.
- ⑤ 발달한 중국 문명의 소유 여부, 한족의 통치 지역인지 여부가 '화'와 '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32.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중화주의의 '화이론'을 복원시켜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부활하려는 의도이군.
- ② 중화 민족은 다수 민족의 총합이라고 설정하여 소수 민족의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의도이군.
- ③ 소수 민족을 중화 민족으로 융화시켜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의도이군.
- ④ 과거 한족과 비한족의 대립이 민중의 통일 의지의 산물이라고 해석한 역사의식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이군.
- ⑤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중국 민족 공동체를 설정하여 주변국과의 영 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이군.

33. 글쓴이의 입장에서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사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체계인데, 이러한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주체들의 현재적 관점이 투영되어 구성된 주관적 산물인데, 현재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는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발생, 성장, 해체의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발생과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과정과 과거의 객관적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중시해야 하는데, 객관적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역사는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중요한데,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34~3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1)

┌ 반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 내 꿈아

[A] 만 리 遼陽(요양)을 어느덧 다녀온고.

└ 반갑다 鶴駕(학가) 仙容(선용)을 친히 뵌 듯하여라. <제1수>

풍설 석거친 날에 뭇노라 北來使者(북래사자)야, ①小海容顏(소해용안))이 언매나 치오신고.

故國(고국)의 못 쥭는 孤臣(고신)이 눈물계워 ㅎ노라. <제2수>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업스니 긔 아니 조홀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호야 실람겨워 흐노라. <제8수> - 이정환.「비가(悲歌)」

(나)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니실시, 을사(乙巳) 삼하(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노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예병(病)이 깁다 안자실랴. 일장검(一長劒) 비기 초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나, ①여기진목(勵氣瞋目)호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벽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훈 창파(滄波)는 긴 ②하늘과 훈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후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후고, 어리미친 회포(懷抱)애헌원씨(軒轅氏)를 애두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호야 ⓑ 전(天地)예 둘려시니, ②진실로 빈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빗긔, 어남 사이(四夷) 엿볼넌고. 무숨 일후려 후야 빈 못기를 비롯혼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기업순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중략)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브라보며, 상시노 루(傷時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노다. 오동방(吾東方) 문 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랴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 幸) 후야 ⑤해추흉모(海醜兇謀)애 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시셔 브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 흔들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뫼읍고 늘거신둘,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닌 각(刻)애 이즐 ゼ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호**다 마는, 됴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신원(雪憤 伸寃) 어려올 듯 호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 中達)을 멀리 좃고, 발 업순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 든, ㅎ믈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フ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 어시니, 서절구투(鼠竊狗偸)을 저그나 저흘소냐. ②비선(飛船)에 돌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둘 못 홀 것가. ②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 호야소라. 항 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섬멸(殲滅)ㅎ랴.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竝生) 호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셔,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 (朝復朝) 호얏거든, 전선(戰船) 투던 우리 몸도 ⓒ 어주(魚舟)에 창만(唱晚) 학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 성 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ㅎ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명령적 어투를 통해 대상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 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5.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カ>-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합니, 바람의 디눈 닢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 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렷관되,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쳣는고.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① [A]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② [A]와는 달리, <보기>에는 화자를 방해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③ [A]와는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④ <보기>와는 달리, [A]에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A]의 화자는 꿈을 통해서 그리워하는 대상을 만나고 있다.

36. ②~@ 중, ⑦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a)

(2) (b)

(3) (c)

(4) (d)

(5) (e)

37. <보기>를 참고하여 ①~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u> 은 것은? [3점]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아직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부산진에 통주사로 내려온 작가가 쓴 작품이다. 작가는 배를 타고 전쟁의 시련을 떠올리면서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내고 왜적이 다시 침략하면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평화로운 세상을 희구한다.

- ① ①: 무인으로서 왜적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군.
- ② ① : 배가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이 담겨 있군.
- ③ ⓒ : 전쟁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군.
- ④ ② : 왜적이 다시 침략하면 왜적을 앞장서서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⑤ ① : 왜적이 침략하지 않으면 왜적과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군.

【38~4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여성은 불완전하고 수동적이며 잠정적인 존재로, 남성은 완전하고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육체적 차이는 남녀 사이의 지적인 차이에 투영되었다. 17세기 기계적 철학은 물질과 영혼, 혹은 몸과 마음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러한 이분법은 흥미롭게도 육체의 차이가 반드시 영적 혹은 지적인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낳을 수도 있었으며, 이는 여자들이 최소한 마음에 있어서는 남자와 동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실제로 ①소수의 기계적 철학자들은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은 두뇌와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 측면에서 해부학, 화학과 같은 과학을 남자만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7세기는 성(性) 기관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강조했던 시기였다. ⓒ17세기 해부학자들은 여성의 성 기관들이 소모적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심지어 무용지물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특히 현미경의 발달로정자(精子)가 발견된 이래 소위 '정자론자'들은 자손이 여성의 몸이 아닌 남성의 정자 안에 처음부터 축소된 형태로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번식은 전적으로 남성의 공헌이라고 주장하였다.

②18세기 해부학자들은 성 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기관에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의 해부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생식기관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해부학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여성이 굴곡이 있는 몸 형태를 가진 이유가 뼈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지방이 더많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골격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18세기 해부학자들은 여성의 골격이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남성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골격은 조직이 더 약하고, 골반이 더 넓으며, 두개골이 더 작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에딘버러의 해부학자였던 바클레이는 남성과 여성의 골격을 말과 타조의 골격에 비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여기서 말은 탄탄한 골격 때문에, 타조는 작은 머리와 넓은 골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

이 남성과 여성의 골격 그램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도해가 아니라, 당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라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말은 남성 골격의 위력을 상징했으며, 타조에 비유된 여성의 골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두개골은 여성의 낮은 지능을 상징했다. 여성의 더 넓은 골반은 강한 사내아이, 특히 큰 머리에좋은 지능을 보유하고 태어날 사내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구조를 나타냈다. 여성의 뼈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여성들의 육체적 나약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그림들은 여성들 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를 정형화했지만, 해부학, 두개골학 그리고 골상학과 같은 당시 과학의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을 지녔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국력의 쇠퇴로 우려한 남성들은 여성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것이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인구를 증가시켜 국부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여자가 남자와 같이 정치, 상업, 교육, 과학 등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간주했다. ①남녀의 골격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성차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 해부학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정당화했다. 18세기 해부학은 남녀의 육체적 차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비판반을 수 있다.

38. □~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①과 ©은 남녀 사이의 지적 차이와 육체적 차이가 무관하다고 생각 했다.
- ② 🖒과 ②은 남녀의 골격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③ ②과 ②은 생식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C과 달리, ②은 남녀가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 (5) ②과 달리, ①은 여자와 남자가 지적으로 동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9. 남성과 여성의 골격 그림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해부학적으로 나타내는 단순한 도해이군
- ② 여성의 육체적 나약함을 여성의 굴곡 있는 몸 때문으로 보고 있군.
- ③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 차이만 있지 지적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군.
- ④ 여성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군.
- ⑤ 남성과 여성을 동물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당시의 동물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군.

40. ②에 나타난 글쓴이의 입장을 강화하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 기. 과학은 그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그 참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 L. 과학은 그 내용에 있어 사실 진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과학의 결과에 대하여 사 회적, 윤리적 책임을 과학자에게 물을 수 없다.
- 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장래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적 행위 결과 가 인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학문적 성과에만 안주하여 그 도덕적 책임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 고. 과학적 실험이란 자연에 인공적으로 제약을 가하여 자연의 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실험자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과학적 실험이란 자연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관찰과는 달리 자연에 대해 능동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캐내는 적극적 행위이다.

① 7. ∟

② 7. 🗆

③ ∟. ⊏

④ ㄴ, ㄹ

⑤ ⊏, ㄹ

41. <보기>를 참고할 때, ⓐ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보 기>--

어간이 '하'로 끝나는 용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말을 만들 수 있다.

1.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흔하다 → 흔타

- 2.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예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 ① 평범하지

② 익숙하지

③ 깨끗하지

④ 넉넉하지

⑤ 갑갑하지

【42~4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희넨 집도 컸고 정원도 넓었지만 난 별로 눈부셔하지 않았다. 내 집보다 규모가 크고, 좀더 휘번드르르한데도 어딘지 내 집과비슷했다. 편리한 양옥 구조가 다 그렇듯이 그저 그렇고 그랬다. 세간도 그랬다. 하긴 경희네 안방 자개 문갑과 내 집 자개 문갑이같은 값일 리 없고, 그 문갑 위에 놓인 청자가 우리집 것과 같은 6백 원짜리 가짜일 리는 만무하다 하겠다. 그러나 경희나 나나 이런 가장집기들에게 약간의 용도와 금전적 가치와 전시 효과 외엔특별한 심미안이나 애정을 두지 않긴 마찬가지일 테니, 그것들이무의미하기도 마찬가지일 게 아닌가. 나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실비실하지 않았다. 경희는 품위도 우정도 잃지 않을 한도 내에서절도 있게 나를 반가워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영미가 약간 입을 비죽대며 "뭐 일본과 기술 제휴한전자회사 사장이라나 봐"했다. 곧 이어 희숙이 "글쎄 그 사람이 얘 세 번째 남편이래지 뭐니"하고 덧붙였다.

경희는 정숙한 여자가 못 들을 망측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얼굴을 곱게 붉히더니 "계집애두" 하며 손을 입에 대고 웃었다. 덧니가 부끄러워 비롯된, 그녀의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버릇은 이제 덧니의 매력까지를 계산하고 있어 세련된 포즈일 뿐이다. 뱅어처럼 가늘고 거의 골격을 느낄 수 없이 유연한 손가락에 커트가 정교한 에메랄드의 침착하고 심오한 녹색이 그녀의 귀부인다운 품위를 한층 더해 주고 있다. 아름다운 포즈였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아니었다. 노련한 연기자처럼 미적 효과를 미리 충분히 계산한 아름다운 포즈일 뿐이었다. 부끄러움의 알맹이는 퇴화하고 겉껍질만이 포즈로 잔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경희는 내 남편이 한다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자기가 요새 나가는 일본어 학원에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너희 남편이 일본 사람과 교제하려면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걸. 요샌 남편이 출세하려면 뒤에서 여자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해. 그러니 두말 말고 일본말 좀 배워 둬라. 내가 배우는 거야 그 냥 교양삼아 배우는 거지만 말야."

"너야 어디 일본말만 배웠니. 각 나라 말 다 조금씩 배워 봤잖 아."

희숙이가 비굴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야 해외 여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나라 인사말 정도 배워 갖고 간 거지 뭐."

나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비교적 소상히 그날의 얘기를 했다. 만나본 동창 중 경희 같은 소위 고위층의 부인이 있다는 소리에 남편은 점괘를 맞힌 박수무당처럼 징그럽게 좋아했다.

"거 보라구 내가 뭐랬나. 당신 친구 중에라고 고관의 부인 없으 란 법 있겠느냐고 내가 안 그랬어. 잘됐어. 잘됐어. 뭐? 일본어 학 원? 다녀야지. 암 다녀야구말구. 그런 여자하고 같이 다닐 기횔 놓치면 안 되지. 그게 다 처세술이라구. 교제술이란 게 다 그렇구 그런 거지 별건가."

그리고 나선 개화기의 우국지사처럼 자못 엄숙하고 침통해지면 서

"아는 것이 힘이라구. 배워야 산다구. 배워서 남 주나." 하고 악을 썼다. 경희의 권유에서라기보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곧 일어 학원엘 나가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 약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의 밑천을 삼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요샌 관광안내원이 괜찮은 직업이라 하지 않나.

일어 학원에서 경희를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는 중급반이 요 나는 초급반인 탓도 있었고, 그녀는 별로 열심스러운 학생이 못 되어서 결석이 잦았다. 간혹 만나더라도 암만해도 강사를 집으 로 초빙해야 할까 보다느니, 아무한테도 쟤가 아무개 부인이란 발 설을 말라느니, 이를테면 자기 신분에 신경을 쓰는 소리나 해서 거리감만 점점 느끼게 했다. 내 일본말은 늘지 않았다. 일제 때 배운 거라 대강은 알아들으니 쉬 익힐 법도 한데 강사인 일녀의 발음에 따라 '오하요'니 '사요나라'니 소리가 도무지 돼 나오지를 않았다.

일어 학원이 있는 종로 일대에는 일어 학원말고도 학원이 무수히 많았다. 서울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두 군데 이상이나 다니나보다. 영수 학관, 대입 학원, 고입 학원, 고시 학원, 예비고사반, 연합고사반, 모의고사반, 종합반, 정통영어반, 공통수학반,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대반…… 이 무수한 학원으로 무거운 책가방을든 학생들이 몰려 들어가고 쏟아져 나오고 했다. 자식을 길러 본경험이 없는 나는 이들이 은근히 탐나기도 했지만 이들의 반항적인 목짓과 곧 허물어질 듯한 피곤을 이해할 수 없어 겁도 났다.

어느 날 어디로 가는 길인지 일본인 관광객이 한때, 여자안내원의 뒤를 따라 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어느 촌구석에서 왔는지야박스럽고, 경망스럽고, 교활하고, 게다가 촌티까지 더덕더덕 나는 일본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안내원 여자는 너무 멋쟁이라 개발에 편자처럼 민망해 보였다. 그녀는 멋쟁이일 뿐 아니라 경제제일주의의 나라의 외화 획득의 역군답게 다부지고 발랄하고 궁지에 차 보였다. 마침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관광객과 아무렇게나 뒤섞였다. 그러자 이 안내원 여자는 관광객들 사이를 바느질하듯부비며 소곤소곤 속삭였다.

"아노— 미나사마, 고치라 아타리카라 스리니 고주이 나사이마세(저 여러분, 이 근처부터 소매치기에 주의하십시오)."

처음엔 나는 왜 내가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까 하고 무척 무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차츰 몸이 더워 오면서 어떤 느낌이 왔다. 아아,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그 느낌은 고통스럽게 왔다. 전신이 마비됐던 환자가 어떤 신비한 자극에 의해 감각이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필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환희롭게. 나는 내 부끄러움의 통증을 감수했고, 자랑을 느꼈다.

나는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 오르는 걸 느꼈다.

내 주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출렁이고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론 모자라 ××학원, ○○학관, △△학원 등에서 별의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펄러덩펄러덩 훨훨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아아,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들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다.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ㄹ.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7, ∟

② 7, ⊏

③ ¬, ≥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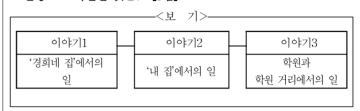
⑤ ㄷ, ㄹ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자 안내원'은 '나'의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나'는 결혼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 ③ '남편'은 '나'를 매개로 해서 '경희'에게 자신의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

- ④ '영미'와 '희숙'은 '경희'를 매개로 해서 '나'에 대한 과거의 거리감을 지 우려고 한다.
- ⑤ '경희'는 '나'가 그녀의 가식적인 행위를 간파했음을 알고 더욱 품위 있 게 행동한다.

44. 윗글을 <보기>와 같은 이야기 단위로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야기1과 이야기3에서 '나'가 '경희'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동일하다.
- ② 이야기3에서 '나'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본래 목적은 이야기1에 제시되어 있다.
- ③ 이야기2에 제시된 '나'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이야기1과 이야기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야기3에서 '나'가 겪는 상황은 이야기2에서 '나'에 대한 '남편'의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이야기1~3에서 각 이야기 단위마다 서술 시점이 달라져 '나'의 다양한 고민이 부각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가치가 전도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출세에 대한 욕망이 횡행하면서 인간의 내면적 순수함은 상실된다. 물질적 측면에서만 화려한 외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또한 그것을 위한 도구 내지 수단으로 전략한다. 이 작 품은 그러한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뼈아프게 깨우쳐준다.

- ① '경희네 집'의 '가장집기'를 통해 물질적 측면에서만 화려한 외피를 추구하는 삶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 ② '깃발'과 '손수건'을 날리려고 하는 것을 통해 '나'가 삶의 진정한 가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일어 학원'과 '일본인 관광객'을 통해 일본 문화로 대표되는 외래문화 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와 '경희', '나'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통해 '나'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인간적 유대감보다는 물질적 욕망 충족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 ⑤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편'을 통해 '나'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인간의 순수한 내면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지식보다는 세속적 출세와 관련된 지식이 더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